

7월 IT 체감경기 변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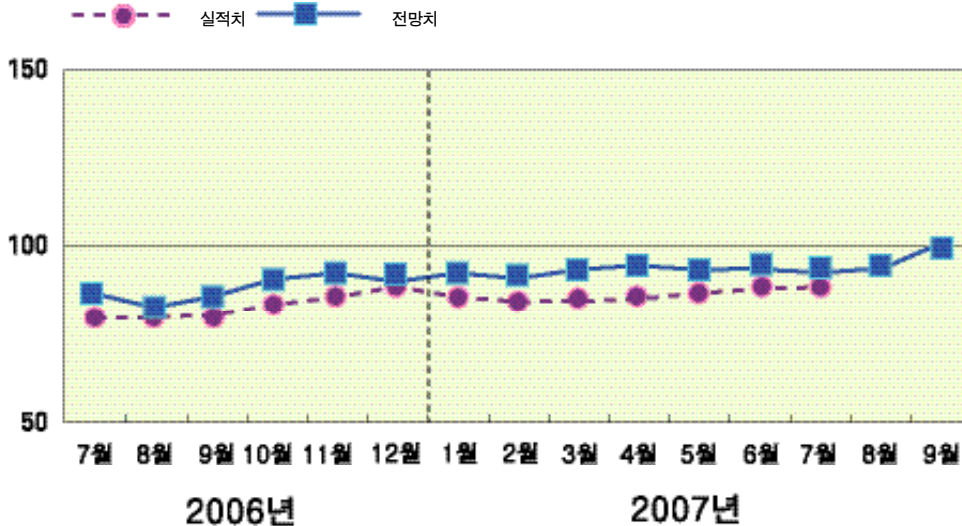
환율급락 불구 IT-BSI 동일...8·9월 소폭 상승 기대

●○● 협회는 지난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제조, SW 등 1312개 응답 업체(대기업 220개, 중소기업 1092개)를 대상으로 7월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과 동일한 89로 나타났으며, 8월과 9월에는 94, 100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표1> IT - BSI

구분	2006년						200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적치	81	80	81	84	86	90	86	85	85	86	87	89	89	-	-
전망치	84	83	85	90	92	91	92	91	93	94	93	94	93	94	100

● <그림1> IT - BSI



7월의 BSI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환율급락·유가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휴대폰·반도체·패널 등의 해외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6월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과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이 각각 전월과 동일한 95와 91,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소폭 하락한 82로 나타났다. 전체 BSI는 89를 나타냈다.

IT대기업 BSI 부문별 실적지수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103,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99,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90으로 나타났다. 전체 IT대기업의 실사지수는 98로 나타났으며, 8월과 9월은 103, 113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T중소기업 BSI 부문별 실적지수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89, 정보통신기기 부문 78,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91로 나타났다. 전체 IT중소기업의 실사지수는 86으로 나타났고, 8월과 9월은 91, 96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 <그림2> BSI 실적 추세

